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손혜현

1. 서론

최근 10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4명의 여성이 동시에 정부 최고위직인 대통령직을 수행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역사적인 시기를 맞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ández. 이하 ‘크리스티나’로 표기함),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피(Dilma Rouseff), 코스타리카의 라우라 친칠라(Laura Chinchilla) 그리고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는 전통적으로 남성우월주의 문화가 강하게 뿌리 내린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높은 지지율로 정권획득에 성공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의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30%에 육박한다. 이는 선진국의 24.5% 그리고 세계평균 22%와 비교하여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우리가 라틴아메리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증가하는 여성정치인의 숫자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여성정치인들이 행사하는 정치적 리더십과 그 리더십이 갖는 정통성에 있다.

크리스티나는 평범한 노동자의 딸도 대학교육을 받고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53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라 플라타(La Plata) 시의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크리스티나는 라 플라타대학 법대 재학시절 청년 페론당(Partido Justicialista)에 가입하면서 진보적 정치성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군부독재하에서



크리스티나 키르츠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 (출처: <http://storage0.dms.mpinteractiv.ro>)

페론당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츠네르를 따라서 그의 고향인 아르헨티나 최남단의 산타 크루스(Santa Cruz) 주로 내려가 변호사로 활동했다. 본격적인 정계입문은 1985년 주 의회에서 페론당 정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산타 크루스 주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94년 메넴정부 시절에는 당시 산타 크루스 주 주지사였던 남편 네스토르와 나란히 개헌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대통령의 재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1995년 산타 크루스 주 연방상원의원으로 선출되어 페론당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당시 지방 주지사였던 남편보다 전국적으로 더 큰 유명세를 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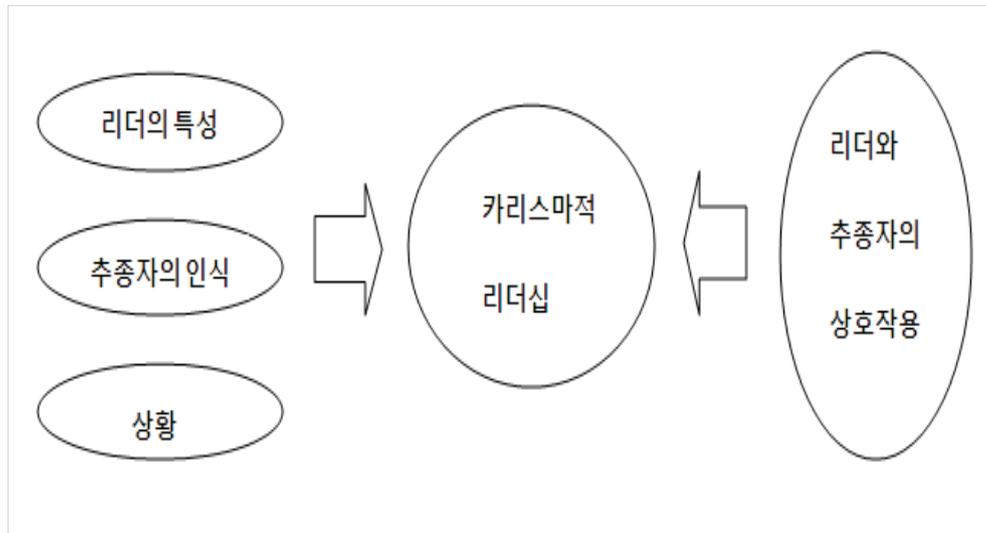
2003년 분열된 페론당의 ‘승리를 위한 전선’(Frente para la Victoria)이라는 분파의 대통령후보로 출마한 남편 네스토르 키르츠네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크리스티나는 영부인으로써 남편을 내조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지역구를 바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상원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됨으로

써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이어갔다. 크리스티나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에바 페론과 아르헨티나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최초 여성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이사벨 페론조차도 남편인 후안 도밍고 페론의 후광과 그늘에 가려 전통적인 성 역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반면, 크리스티나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통해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논란이 되는 정치적 쟁점을 오히려 정치기반을 확대하고 지지 세력을 공고화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리더십이란 리더가 특정집단을 이끌어가기 위해 행사하는 총체적인 권력이나 비 강제적인 영향력 등을 말한다. 사회에서의 지배의 원천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한 막스 베버는 이러한 리더십의 유형을 전통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그리고 합리적 리더십으로 구분하였다. 전통적 리더십은 개인의 특성이 아닌 왕권과 같이 세습되어 내려오는 권위이며,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전통적 또는 공식적으로 부여 받은 권력이 아니라 리더 개인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권위이며, 합리적 리더십은 법, 제도, 계약 등 공식적인 규범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이다.¹⁾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의 정치 리더십은 리더와 추종자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크리스티나의 리더십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리더십의 구축과정과 정통성 공고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2. 카리스마적 리더십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리더십에 대한 하나의 일관된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리더십은 개인과 집단 그리고 리더와 리더를 따르는 추종자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분석의 단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개념정의는 달라 질 수 있다. 리더십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으나, 분석의 단위를 리더 개인으로 설정할 것인

1) M. Weber, *Economy and Society*, ed. G. Roth·C. Wittich, 2 Vols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255.



크리스티나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가 아니면 리더를 둘러싼 외부적 환경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개인 특성 이론에서는 리더십을 전적으로 개인의 자질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리더의 가치관, 신념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중요한 변수로 본다. 그리고 행동양식 이론의 경우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동양식이 있다고 가정하고,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리더의 행동양식을 중요한 변수로 본다. 그러나 연구 결과마다 상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는 사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최근의 연구경향에서는 ‘상황’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통해서 리더십을 분석하는 상황 리더십 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베버는 카리스마를 “사람에게 초인간적 또는 비범한 능력이 부여된 특별한 성격적 특성”이라고 정의했으며, 전통적 또는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권력이 아니라 리더가 비범한 자질을 부여 받았다는 추종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영향력을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카리스마적 리더의 출현은 단순히 리더의 자질적 특성 또는 상황 어느 하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와 추종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리더의 천부적인 자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상황

적 맥락에 따라 영향을 받는 추종자의 인식과 반응에 의해서 카리스마적 리더가 출현한다는 것으로 카리스마는 리더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독특한 자질이 아니라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이다(House, 1997; Shamir et al., 1993; Conger & Kanungo, 1998). 따라서 리더는 추종자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추종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고, 개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감정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추종자 역시 리더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감,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리더의 신념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고, 리더가 제시한 비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 그리고 리더의 개인적인 매력에 정서적으로 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에서 등장하기 쉽다.

카리스마적 리더의 출현은 단순히 개인이 리더로서 천부적으로 타고난 자질과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리더의 특성적인 힘으로 추종자에게 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추종자가 리더를 신뢰하고 존경하여 리더의 비전과 자신의 비전을 동일시할 때 가능하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특별한 상황에서 리더는 추종자의 욕구와 관심에 늘 주목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을 해결할 자신이 있다는 확신을 줌으로써 추종자의 내재적 동기수준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추종자가 리더를 어떻게 인식하며, 리더와 추종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자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공식적 자원은 지위나 직책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의미하며, 조직 능력과 권모술수 능력과 같은 조셉 나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드 파워(hard power)의 개념에 부합한다. 반면 비공식적 자원은 지위나 직책 외적인 권력을 말하며 효율적인 소통 능력, 정서적 지능, 비전 제시 능력과 같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2007년 대선에서 크리스티나는 시민연합(Coalición Cívica)의 엘리사 카리오(Elisa Carrió)보다 22%나 더 많은 표를 획득하여 45.29%라는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민주주의로 복귀한 이후 치러진 선거기록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이었다. 그러나 크리스티나의 인기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집권 직후 1년간 정부와 사회와의 감정적 대립은 매우 격렬했으며,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농민과의 갈등²⁾, 여행 가방 스캔들³⁾, 국내 최대 미디어 재벌인 클라린(Clarín)과의 갈등⁴⁾, 아르헨티나항공, 민간연금, 아르헨티나 수도국 등 90년대 민영화했던 국영기업의 재국유화 등 일련의 사건은 크리스티나의 인기를 급격하게 실추시켰고, 지지율도 35%로 떨어졌다. 급기야는 전 대통령 네스토르 키르츠네르의 대중적 인기를 앞세운 유세에 주력했던 2009년 의회선거에서 승리를 위한 전선당(FPV)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를 포함한 4대 지역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코르도바 주, 산타페 주 그리고 멘도사 주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키르츠네르계의 종말을 예고하는 듯 했다.

2008년과 2009년 까지만 해도 크리스티나가 세계 최초로 재선 여성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정치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1년

- 2) 2008년 3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주요 식료품의 내수시장 보호와 국내가격상승 방지를 목적으로 수출 농산물에 대한 수출세 인상안을 발표하였다; 대두(35%) 대두유 (32%), 쇠고기(15%, 수출쿼터 또는 수출제한), 밀, 옥수수(23%~20%), 유지해바라기씨(32%), 해바라기씨 기름(30%). 이에 대해 농업단체와 반정부세력들이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냄비시위까지도 가세했다.
- 3)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크리스티나의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행 가방에 달러를 가득 채워서 보낸 사실이 폭로되면서 터진 정치스캔들이다. 이 사건은 미국 정부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는데, 여행 가방에 가득한 자금이 단순한 선거자금 지원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정부의 아르헨티나 정부로의 정기적인 송금체제로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 4) 2008년 크리스티나 대통령이 추진한 농축산물 수출세 인상에 클라린 기업이 반대하면서 현 정권과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후 중도좌파 성향의 현 정부는 보수언론과 전쟁을 선포하고 클라린 기업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2009년 정부는 미디어기업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단일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TV와 라디오 방송사의 수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미디어법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Cablevision, Clarin 신문, 채널13 등 다수의 미디어 사업자를 소유한 클라린 기업이 해당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연되었던 미디어법이 2013년 12월 대법원의 합헌판결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네스토르 키르츠네르(1950~2010) 2003년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2007년까지 재임하였다.(출처: <http://www.paginapopular.net/>)

대선을 며칠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크리스티나의 승리는 기정사실화되었다. 단지 선거가 갖는 의미는 다른 후보자와 얼마만큼의 표 차이로 승리하게 될 것인가에 집중될 뿐이었다. 2011년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크리스티나는 무려 54.11%라는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페르난데스 크리스티나가 권력의 철옹성을 쌓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4년 밖에 되지 않았다. 어떻게 크리스티나는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하고 지지자로부터 권위의 정통성을 부여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적 리더십이란 워낙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크리스티나 대통령이 집권 초기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매우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우선 크리스티나의 천부적인 리더로서의 재능과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크리스티나는 뛰어난 웅변가이며 타고난 달변가이다. 대중연설을 즐겨 많게는 일주일에 네 개의 연설을 할 때도 있으며,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는 한 손에 초콜릿을 든 채 즉문즉설

로 서너 시간을 넘기는 장시간의 연설과 대답을 마다하지 않는다. 전혀 막힘이 없다.

크리스티나의 연설방식의 특징은 맺고 끊음이 있고, 야당과는 대결적이며, 이전정부를 심하게 비판하고, 정적이나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으로 해명을 요구한다. 다음은 크리스티나의 연설 가운데 일부이다.

2003년 우리가(키르츠네르계) 집권했을 때 정말로 국가는 파산상태였다. 이 파탄의 책임은 바로 전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정부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당 의원 다수는 과거 임금인하, 노동자 정리해고와 인원감축, 국가부채, 은행예금동결(corralito) 등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다. 나는 지금까지 신랄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을 본적이 없고 이들은 국가의 재산을 낭비할 뿐이다(2010년 8월 7일).

당시 국가개입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므로 국가를 축소하고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했던 그때의 정당과 정치인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는가?(2009년 4월 7일).

나에 대해 사실이 아닌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정치적 결정을 내가 아닌 네스토르 키르츠네르가 하는 것처럼 얘기 하는데, 현재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2009년 9월 14일).

위에 열거한 연설을 살펴보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대상을 향해서 상당히 강경하고 직접적인 어조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 경우 빈정대는 표현도 주저하지 않는다.

크리스티나의 대중연설에서 정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빠지지 않는 주제는 키르츠네르계 정부가 달성한 성과에 대한 마르지 않는 칭찬과 공약 이행에 대한 자랑이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적 맥락에서 아르헨티나가 갖는 경쟁력을 언급하면서, 이전 정부와 야당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실책을 범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국익에 배반되는 것인지를 강조한다. 또한 세계경

제위기와 관련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와 시장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한다. 크리스티나의 연설은 어려운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며, 직설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분명하다. 연설의 주된 주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모델의 필요성 미국과 같은 헤게모니권력에 대한 저항, 정책의 우선순위로서의 원주민 문제이다.

크리스티나는 직설적이고 정면 돌파를 추구하는 성격이지만, 국민들의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을 주요전략으로 사용한다. 지난 2013년 51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온세 역 열차탈선사고 직후 6일 동안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후 사고수습 6일 만에 나타나서 그녀가 했던 말은 “죽음과 비극적 사고 앞에서 내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난 누구보다도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알며 이런 비극과 고통을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선동적인 어떠한 행사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한 공적 행사에 참여하여 당시 열차사고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현장에서 사고구조를 도왔던 시민들을 초대하여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참사에 대한 애통함과 참담함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국민을 선동한다는 비난을 피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고 후 6일간의 부재에 대한 비난을 잠재웠다.

크리스티나는 남편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대통령가의 리더십 스타일과 특징을 그대로 승계함에 따라 크리스티나의 리더십 역시 수직적이고 분산된 권력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급 관료는 크리스티나가 신뢰하는 인물 중에서 선별되며, 내각의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임명한다. 의회는 상·하원 의석으로 통제했으며, 잦은 긴급 대통령령을 발표하여 의회의 기능을 수시로 약화시켰다. 의회의 권한이 약화됨으로써 인물(개인)중심의 정치는 더욱 강해졌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정치적 결정이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었다. 페론주의의 전통상 국가의 대통령이 당대표를 겸임하기 때문에 페론당 역시 크리스티나의 리더십에 장악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리더십은 대통령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된 정부를 기반으로 하며, 게임의 법칙과 국가정책에 대한 야당과의 대화나 합의가 사실

상 없다.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면서 포상과 처벌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국민과의 직접적인 관계 형성을 선호한다. 크리스티나의 리더십은 리더의 계획과 결정과 차별되는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카리스마적 리더와 소수 측근에게 의사결정이 집중되는 페론주의 운동의 비합리적 피라미드식 조직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크리스티나의 카리스마적 이미지와 연설 방식은 에바 페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격양되고 확고한 목소리 톤과 준비된 연설문 없이 대중 앞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며 대중의 감정 이입을 유도한다.

크리스티나의 재선 유세 중에 사용된 슬로건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국민의 힘은 크리스티나의 힘!’이었다. 이 슬로건은 리더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하며, 동시에 대통령 개인의 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야권의 분열, 정책 제안의 부재와 취약성, 네스토르 키르츠네르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미망인 크리스티나에 대한 대중의 동정심 그리고 집회와 행사에서 아르헨티나와 아르헨티나 국민의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이미지 상징화, 네스토르 사망 이후 한층 타협적인 연설방식 수용, 개발주의 경제가 당면한 위기 앞에서도 국가를 자랑스럽게 과시하는 자신감, 국제시장에서의 높은 원자재 가격,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에 대한 조셉 스티글리츠와 폴 크루그먼과 같은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경제전문가의 칭찬은 크리스티나 정부가 위기 앞에서도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구축하고 권력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4. 리더와 추종자의 상호작용

그러나 이러한 요인 외에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회집단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토대를 구축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유포하는 데 있어서의 크리스티나의 탁월한 능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의 소통에서 사용한 상징적 효율성은 크리스티나의 리더십 강화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크리스티나는 현재의 유리한 요소 즉 키르츠네르 이전 정부의

산물인 경제적 성과를 계승하여 과거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폐해를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현실과 비교도 안 되는 미래의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제시하였다. 추종자들의 가치, 이상, 사회계층화,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크리스티나의 비전을 따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높은 기대감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들이 능력 있고 강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수출세, 동성결혼의 합법화, 아르헨티나항공과 민간연금 그리고 YPF의 국영화, 외환시장규제, 국가 디폴트, 극심한 인플레이션, 측근의 부패스캔들, 대통령의 부정축재와 외화도피(Rute-K), 최근에는 니스만(Nisman) 검사의 살인 배후로 지목되는 등 크리스티나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위기상황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에서 크리스티나의 리더십은 견재했으며, 오히려 지지율과 긍정적 이미지가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추종자들은 크리스티나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내재화했다. 즉 키르츠네르식 암호로 현실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티나가 제시한 비전을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반대편으로부터 방어하고 부정하는 이들을 설득시키고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었다. 지난 2013년 10월 총선의 결과는 추종자들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크리스티나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3선 개헌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선거에서 여당인 승리를 위한 전선(FPV)은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긴 하였으나, 최대 선거구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와 주요 4대도시에서 K(키르츠네르 정부)와 후보들이 대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나의 비전, 관점, 정책적 우선순위는 상당부분 국민들에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큰 변화 없이 기존상태를 유지하였다.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중요성은 단순히 여성대통령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종종 에바 페론 그리고 네스토르 키르츠네르와 비교되곤 한다. 공식석상에서 종종 크리스티나는 에바 페론을 롤모델이라고 언급하였고, 에바 페론의 이미지와 명성을 자신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였다. 또한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전 대통령의 정책노선을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생전에 그가 쌓은 명성과 인기, 국민들의 연민과 동경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제2의 에바 페론과 네스토르 키르치네르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사회적 분열을 야기했던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크리스티나의 담론을 살펴보면 크리스티나는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문제를 추종자 개인의 문제와 동일시하도록 하였다.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에바 페론의 ‘여성 투표권’ 합법화와 동일선상에 두고, 당시 에바 페론의 선구자적인 결단이 없었다면, 자신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여성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외치면서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동성애자도 여성과 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제도를 통해서 여성이 진보했듯이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동성결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에바 페론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호의적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추종자의 애국심에 호소하였다. 이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대통령 개인의 업적이거나, 특정집단(동성애자)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국민 전체의 이름을 높일 것이고 국가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크리스티나는 본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가치를 공동체의 목표로 설정하여 추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능과 능력이 탁월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초기 90%가 반대하였던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아무리 논쟁적인 사안이라 할지라도 극복하고자 하는 크리스티나의 인기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외에도 이후에 발생한 YPF 석유회사의 재국영화, 외환시장규제, 투표연령 16세 하향조정, 사법부개혁 그리고 최근 국가 디폴트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중대 사건은 사회의 심각한 저항을 가져왔고 크리스티나 정부가 정치적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그때마다 크리스티나는 국민들 앞에 나타나 타고난 웅변술과 달변으로 장시간에 걸친 대국민 연설을 하였고 위기상황에서 아르헨티나 국민은 더욱 통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티나의 인기도 상승하였다. 위기상황에서 추종자는 현재의 불안과 문제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누군가를 기대하였으며, 그 누군가는 바로 크리스티나였다.

5. 결론

이론적으로라면 정부는 약화되어야 하지만, 현 정부의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전체 국민의 약 70%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선에서 현 정부의 정책노선의 승계를 약속하는 다니엘 시올리(Daniel Scioli)를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자로 지목하고 있다. 야당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으며, 여당의 견제세력 역할을 포기한 지 오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선뜻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두가 2015년 대선 이후에도 FPV내에서의 크리스티나의 리더십은 확고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크리스티나의 리더십에 대항할만한 정치적 인물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2015년이면 임기가 끝나지만, 크리스티나의 리더십 임기는 아직 만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나의 리더십은 리더로서의 천부적인 자질적 특성 뿐만 아니라 상황적 맥락에서 형성된 추종자의 인식과 반응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손혜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초빙연구원